《북도발》설의 진상을 고발한다

평 양 출 판 사
주체102(2013)년

알려진바와 같이 공화국은 지난해 12월 관례이상으로 국제적인 투명성을 보장한 상태에서 정정당당하게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그러나 공화국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적대행위에 의해 그 무슨 《위반》과 《도발》로 매도되였으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날강도적인 《제재결의》까지 채택되는 험악한 상황이 조성되였다.

나라의 자주권이 유린당하는것을 추호도 용납할수 없기에 공화국은 포악무도한 《제재결의》를 조작해낸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적대행위에 대한 단호한 자위적 대응조치로서 제3차 지하핵시험을 단행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한사코 공화국에 《도발

자》의 감투를 씌우며 보다 강도높은 유엔《제재결의》를 조작해내는 파렴치한 도발행위를 또다시 감행하였다.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전례없는 규모의 핵선제타격무력을 동원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정세를 전쟁국면에로 몰아갔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광풍을 몰아오고있는 이 모든 적대행위와 전쟁책동이 어처구니없게도 그 무슨 《북의 도발》이라는 황당무계한 궤변밑에 감행되고있다는것이다.

우리 나라 속담에 도적이 매를 든다고도 하고 도적이 도적이야 한다고도 하는 말이 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제아무리 《도

발》이니, 《위협》이니 하고 공화국을 걸고들면서 내외여론을 오도하며 북침전쟁소동에 열을 올려도 도발자로서의 저들의 흉악한 정체를 숨길수는 없는 법이다.

흑백을 전도하는 《북도발》설

지금 조선반도에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부당하게 조작한 유엔《제재결의》들과 무분별한 북침전쟁연습소동에 의하여 언제 어느 순간에 핵전쟁이 터질지 모를 첨예한 정세가 분분초초를 다투며 폭발계선으로 치닫고있다.

이러한 조선반도정세를 배경으로 지난 시기 여러 전쟁터에 종군기자로 참여하여 《전쟁개시자》로 불리우는 취재진까지 남

조선에 날아들어 붙는 불에 키질을 하고 있다.

계다가 다치면 폭발할것만 같은 일촉즉발의 긴장속에 남조선주민들속에서 불안과 공포증이 확대되면서 식료품과 생활필수품들을 마구 사들이고있고 여러 나라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처하여 남조선에 있는 자국민들을 대피시킬 비행기를 준비한다, 배를 준비한다 하면서 복닥소동을 피우고 있는 현실도 그전에는 좀처럼 찾아볼수 없었던 광경이다.

이처럼 초긴장과 극도의 불안속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조선반도의 첨예한 정세속에서 주목하게 되는것은 미국과 남조선의 현보수패당이 그 무슨 《북도발》설에 끈질기게 매여달리고있다는것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공화국의 인

공지구위성발사와 지하핵시험을 그 무슨 《도발》로 떠들어대면서 마치도 북의 《도발》에 의해 조선반도정세가 험악하게 번져지고있는듯이 줄곧 여론을 오도하고있다.

거짓과 기만, 모략과 권모술수에 이골이 난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서로 한짝이 되여 전쟁이라는 목표를 향해 도발수위를 한단계한단계 고조시키고있으면서도 그에 대처하는 공화국의 자위권행사에 대해 법석이며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악을 쓰고있는것이다.

그야말로 백주에 흑백을 전도하는 파렴치한 도발중의 도발이 아닐수 없다.

원래 공화국이 핵을 보유하게 된것도, 강위력한 국방력을 가지게 된것도 다름아닌 미국의 무력공갈책동과 핵위협공세때문이라는것은 부정할수 없는 력사적사

실이다.

지난 조선전쟁때 미국이 원자탄공갈로 수많은 사람들을 남쪽으로 끌고가 《1천만 리산가족》이라는 민족의 대비극을 초래한데 대해 전체 조선민족은 오늘도 똑똑히 기억하고있다.

조선반도에 핵무기를 처음 끌어들인것도 미국이고 남조선을 세계최대의 핵무기고로 전변시킨것도 미국이며 장장 수십년동안이나 북침핵전쟁연습에 광분해온것도 미국이다.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폭언을 로골적으로 줴치고 《핵태세검토보고서》니, 《확장억제》니 하는것을 통해 핵공격흉심을 드러내며 실전연습까지 공공연히 감행하면서 북을 핵으로 위협공갈하고있는것도 바로 미국이다.

미국의 이러한 핵위협을 당하고만 있을 공화국이 아니다.

칼을 가진 강도가 위협해온다면 그 이상의 방위수단을 가지고 대항해야 한다는것은 초보적인 상식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공화국으로 하여금 핵을 보유하고 강위력한 국방력을 가지게 하는 길로 나가게 만든 당사자는 다름아닌 미국인것이다.

남조선《국회》 전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이 《통일뉴스》(2013년 4월 11일)에 발표한 자기의 글에서 《미국의 대북적대외교와 북핵은 인과관계가 있다. 수십년간에 걸친 미국의 대북적대행위의 결과가 북의 핵무기보유로 나타난것이다. 타국의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자국의 방위력을 키우는것은 력사상 존재해온 모든 국가의 정

상적인 대응이다.》라고 까밝힌것을 놓고보아도 어느것이 희고 어느것이 검은지 명백히 가려볼수 있다.

얼마전 한 외신도 조선반도정세가 완화되는가, 긴장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강도높은 압력과 군사연습, 제재에 조선은 강하게 반발하고 자기식대로 할것이며 정세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될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바로 미국의 행동이 조선이 핵시험을 강행하게 한 근원이라고 강조하였던것이다.

이것은 공화국의 핵보유가 천만번 지당하다는것을 립증하는 내외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며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속에서 입만 벌리면 터져나오는 《북도발》설이야말로 흑백을 전도하는 현실기만이고 그 어

디에도 통할수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단적인 실례들이라고 할수 있다.

돌이켜보면 미국의 횡포에 의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는 공화국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난과 《제재》, 압력을 주되는 내용으로 하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합리화, 합법화해주는 도발적인 조치들이 여러차례 취해졌다. 미국은 2006년 10월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를 문제시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 1718호를 조작한데 이어 2009년 4월에는 공화국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걸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성명을 발표하였다. 공화국이 그에 대한 자위적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지하핵시험을 단행하자 그것을 걸고드는 《결의》 1874호를 조작하였다.

또한 2012년 4월에는 공화국의 위성발사의 평화적성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것을 막고 그것을 한사코 《장거리미싸일발사》로 몰아붙이기 위하여 온갖 비렬한 술책을 다하던 끝에 그 무엇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강압채택하게 하였다. 바로 그 연장선우에서 미국은 지난해말에 진행된 공화국의 평화적위성발사를 그 무슨 《결의위반》으로 매도하면서 지난 1월 22일 공화국의 신성한 자주권을 란폭하게 침해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제재결의》를 또다시 꾸며내는 횡포를 부리였던것이다.

미국의 주도하에 꾸며진 도발적인 《결의》라는것을 들여다보면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공화국의 평화적위성발사를 감히 비법화하고 북의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를 저해하기 위한 《제재》강화를 노린 포악

한 적대적조치들로 일관되여있다.

미국이 적대시하는 나라의 위성운반로케트는 저들을 위협하는 장거리탄도미싸일로 전환될수 있기때문에 그러한 나라들에서는 평화적인 위성발사도 할수 없다는것이야말로 날강도적인 론리이다.

위성을 쏴올리자면 탄도미싸일기술을 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고 그러한 위성발사를 해마다 수없이 많이 하는 미국이 공화국의 위성발사가 《탄도미싸일기술을 리용한 발사》이기때문에 문제시된다고 우기는것이야말로 자기기만과 이중기준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하기에 어느 한 언론은 그처럼 많은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린 미국이 북에게만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리지 말라고 함부로 강박하는것은 초등학교아이들이 들어봐도

억지이며 망발이라고 하면서 부당하기 그지없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을 강하게 비난하였던것이다.

결국 공화국은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것이 명백해진 조건에서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비핵화도 불가능하다는 최종결론을 내리게 되였으며 미국의 파렴치한 자주권 침해행위에 대처하여 부득불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대응조치들을 취한다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2013년 2월 12일 제3차 지하핵시험이 단행되게 되였으며 이것이 북의 평화적위성발사권리, 자주적발전의 권리마저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미국의 엄중한 침

략책동에 대처한 공화국의 정당방위성격의 조치라는데 대해서는 그 누구도 가타부타할 여지가 없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미국은 저들의 꼭두각시로 전락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내세워 지난 3월 7일 공화국의 핵시험을 걸고 또다시 보다 강도높은 악랄한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조작해냈으며 이러한 도발적인 《제재》놀음의 앞장에 선것이 바로 남조선호전광들이다. 그러면서도 말끝마다 《북도발》에 대하여 떠들어대고있으니 이야말로 극도의 오만과 철면피성의 극치라 해야 할것이다.

미국은 제 마음대로 핵시험도 미싸일발사도 핵위협도 할수 있고 공화국은 평화적인 위성발사도 자위적인 핵시험도 할수 없다는것인데 참으로 언어도단이 아닐수

없다.

그리고도 성차지 않아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3월 1일부터 무려 60일동안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엄중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하였던것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발사와 핵시험을 걸고들며 이처럼 피눈이 되여 발악하고있는것은 다름아닌 공화국의 핵무장해제와 제도전복야망을 이루어보려는데 있다.

남조선호전광들이 북의 《광명성-3》호 2호기 발사후 서해바다에 떨어진 운반로케트 《은하-3》의 잔해물까지 건져보고 높은 경지에 이른 공화국의 기술력에 전률하였다는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제3차 지하핵시험이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공화국의 발표를 부정할 아무런 근거도 찾지 못한것으로 하여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속에서 불안감이 계속 증대되고있는것 역시 감출수 없는 진실이다.

이것은 핵몽둥이를 휘두르며 군사적우세로 공화국에 대한 고립압살책동을 더욱 강화하려던 미국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이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였다는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결국 미국은 어떻게 하나 공화국을 《도발자》로 몰아 세계적인 여론을 조성하

여 반공화국대결책동을 《정당화》하고 끝끝내 반공화국압살의 야망을 실현해보기 위해 그토록 기승을 부리고있는것이다.

력사적사실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광란적으로 떠들어대고있는 《북도발》설이라는것이 다름아닌 공화국에 대한 핵전쟁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반북모략설이라는것을 뚜렷이 증시해주고있다.

원래 침략과 략탈을 고유한 생리로 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항시적인 동반자로 되고있다. 침략과 전쟁을 일삼으면서 제국주의자들이 방편으로 내세우고있는 상투적수법이 바로 상대방에게 《도발자》의 감투를 뒤집어씌우는 모략책동에 매여달리는것이다. 마치 저들이 커다란 위협을 받고있어 전쟁으로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는것이 제국주의자들의 날강도

적론리이다.

력대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은 음모적인 방법으로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전쟁도발의 좋은 구실로 삼아왔다.

미국의 력사를 놓고보아도 모략과 음모로 얼룩진 침략전쟁의 력사라는것을 알수 있다.

1898년 꾸바의 아바나항에 끌어다놓은 순양함 《메인》호를 제손으로 폭파하고 그 책임을 에스빠냐에 넘겨씌운 사건은 전쟁도발의 구실마련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미국의 음모적기질을 잘 보여주고있다.

1991년에 있은 만전쟁도 미국의 모략과 음모의 대표적인 산물이라 할수 있다.

미국은 이 전쟁을 일으키기 1년전부터 이라크의 《인권》침해 등을 가지고 허위

선전을 폈으며 화학무기를 생산하려 한다는 주장을 대대적으로 류포시켰다. 이러한 끈질긴 선전전으로 이라크는 《대량살륙무기》를 제조하는 《위험한 나라》, 《문제성있는 국가》로 국제적인 공인을 받는데까지 이르게 되였다. 이로써 미국은 이라크의 군사력과 군사시설을 파괴해야 한다고 한 저들의 주장을 실천에 옮겨도 별문제가 제기되지 않을수 있는 국제적인 환경을 조성해놓았으며 그후 다국적무력을 동원하여 이라크를 침공하였던것이다.

미국은 1989년 빠나마를 침공할 때도 그전부터 노리에가를 《마약거래범》으로 몰면서 그가 미국사람들의 건강에 《위협》을 주는 인물이라는 비난공세를 퍼부었다. 이런 여론으로 빠나마를 침공할 환경을 마련한 다음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던것이다.

리비아폭격시에도 미국은 리비아가 미국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테로전문가》들을 밀파하였다는 거짓선전으로 세계여론이 발칵 뒤집히게 한 다음 리비아를 불의에 공습하였다.

바로 공화국에 대해서도 미국은 남조선호전광들과 한짝이 되여 온갖 모략수법들을 리용하여 저들의 침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음흉하게 책동하였다.

조선반도에서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책동에 매여달릴 때마다 《북도발》이니, 《위협》이니 하는 모략설을 들고나왔다.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의 문어구에로 바싹 몰아갔던 《푸에블로》호사건과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 등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당시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도발로 불집을 일으킨 미국은 공화국이 먼저 도발을 걸어온듯이 내외여론을 오도하면서 《북도발》을 구실로 침략무력을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로 긴급히 기동전개하며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켰다.

력사적자료들은 진짜 도발자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것을 명명백백히 증명해주고있으며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떠드는 《북도발》설의 진상을 고발하고있다.

조선반도에서 도발과 위협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반공화국도발과 북침전쟁위협뿐이다.

최근년간에 있은 북남관계사의 갈피갈피를 돌이켜보면 남조선호전광들이 《천안》호침몰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농협전산망마비사태, GPS전파교란사건 등 그 무엇이나 다 공화국과 련계시키면서 광란적인 반공화국대결소동에 앞장섰다는것을 알고도 남음이 있다.

얼마전에도 남조선호전광들은 저들의 무능으로 빚어진 3.20해킹공격사건이라는것을 공화국과 련결시켜보려고 모지름을 쓰다가 끝끝내 이 사건이 《북소행》이라는 조사결과보고를 조작해냈다.

사건조사결과가 얼마나 허황한 억지주장과 궤변으로 일관되여있는가 하는것은 남조선 각계에서 현 당국을 두고 《때마다 북에 책임 떠넘기는 만능정부》, 《해킹코드에서 발견된 수많은 1번, 참 희한하다.》, 《어제 농작물 망치게 내린 눈도 북이 만들었을것이다.》, 《<북소행>이라는 정부발표 예견했더니 아닐세라…》 등의 야유와 조소가 노래가락처럼 울려나오고있는 사실

만 놓고도 잘 알수 있다.

있는것도 없다고 하고 없는것도 있다고 하는 남조선호전광들의 이러한 대결광증은 고질적인 반북대결악습의 로골적인 발로이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남조선보수패당이 무엄하게도 공화국의 최고존엄의 상징을 해치기 위한 계획까지 짜놓고 그에 대한 모의훈련들을 감행하면서 북의 군대와 인민을 심히 자극하다못해 심지어 백주에 서울 한복판에서 반공화국집회라는것을 벌려놓고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천인공노할 특대형도발을 감행한것이다.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저지른 이러한 만행들과 관련하여 공화국의 천만군민의 분노는 하늘에 닿고있다.

조선반도의 현정세는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해치고 기어코 북침핵전쟁의 불을 지피려는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도발책동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지경에 이르고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최근의 사태들은 공화국에 《도발자》의 모자를 씌우려고 발광하는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파렴치한 진의도에 대하여 다시한번 낱낱이 까밝히고있다.

현 긴장상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북에 넘겨씌우고 반공화국《제재》와 북침전쟁연습책동을 정당화하며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기회로 한사코 핵전쟁을 일으키고 공화국을 먹어보려는것이 바로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는 《북도발》설의 진상이다.

북침핵전쟁의 전주곡

허황하기 그지없는 《북도발》설이 란무하는 속에 지금 조선반도에서는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벌리는 북침전쟁도발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위험이 현실화된 오늘의 상황은 이른바 《북도발》설이라는것이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저들의 범죄적인 반공화국《제재》와 북침전쟁도발책동을 정당화하고 조성된 엄중한 사태의 책임을 모면하며 나아가서 공화국의 사상과 제도를 해치기 위해 꾸며낸 날조설, 북침핵전쟁의 전주곡이

라는것을 뚜렷이 증명해주고있다.

《북도발》설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저들의 악랄한 북침야망을 가리우고 새 전쟁도발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외에 다른 아무것이 아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 무슨 《남침위협》의 북통을 요란스레 두드리면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도발책동에 악랄하게 매달려왔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조선반도의 군사적대결과 긴장이 최절정에 달한 지금에도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또다시 공화국을 걸고들면서 《북도발》에 대해 요란스레 떠들어대고있다. 내외호전광들은 지어 저들이 벌리고있는 북침불장난소동도 그 누구의 《도발》에 대응한것이라고 사태를 외곡하고있다.

얼마전 태평양지역 미군 총사령관은 공화국의 자위적대응조치가 《국제사회의 불안을 야기》시킨다는 터무니없는 나발을 불어대면서 《긴급사태에 대비한 태세구축》에 대해 떠들어댔다.

미전략사령부 사령관도 공화국의 위성발사와 제3차 지하핵시험을 《위협》과 《도발》로 묘사하면서 미싸일방어체계를 강화할 흉심을 드러냈다. 미국은 그 무슨 《위협》에 대비한 《만반의 태세》니, 《도발에 대한 경고》니 하고 떠벌이면서 남조선호전광들과 함께 북침합동군사연습들을 련이어 광란적으로 벌려놓고있다. 한편 남조선호전광들도 《북핵위협》이니, 《군사적대응강화》니 하고 기염을 토하면서 상전의 《북도발》망발에 적극 맞장구를 치고있다. 남조선군부의 우두머리들은 물론 《국무총

리》까지 나서서 최전방일대의 군부대들을 싸다니며 그 누구의 《도발》시 《보복》이니, 《10배이상의 단호한 응징》이니 하고 씨벌이였다. 지금 남조선호전광들은 입만 벌리면 《북도발》이 언제 예상된다느니, 그 형태는 어떤것이 될것이라느니 하고 나름대로의 수작을 내뱉으면서 북에 한사코 《도발》의 감투를 씌우려고 발광하고있다.

주권국가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고 침략야망을 한사코 실현하기 위해 정치군사적봉쇄와 핵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는자들이 그 무슨 《도발》을 운운하는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아무리 《북도발》설을 떠들어도 저들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합리화할수 없으며 도발과 전쟁밖에 모르는 그 흉악한 몰골을 가리울수 없다.

도발이라고 하면 그것은 공화국의 합법적주권행사를 걸고들며 사상 류례없는 경제《제재》와 압박소동에 매달리고 방대한 핵무력을 동원하여 극도의 전쟁위험을 조성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범죄적책동이다.

오늘 조선반도처럼 침략전쟁연습이 위험천만하게 벌어지는 곳이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것을 볼 때도 진짜 도발자가 누구인가를 잘 알수 있다.

미국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다른 나라들과 각종 명목의 합동군사연습들을 벌리고있지만 남조선호전광들과 함께 조선반도와 주변해역에서 감행하고있는 전쟁연습은 규모와 내용, 기간으로 볼 때 그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세계적으로 큰 규모의 군사연습이라고 하는 《림팩》, 《코브라 골드》, 《코프

노스》 등은 기일이 1주일 길어서 1개월가량이며 그것도 대체로 2년 또는 몇년에 한번씩 진행되고있다.

훈련내용과 방식도 특정국가를 적으로 정하지 않고 일반군사교류나 협동작전능력을 강화하는 훈련과 병종, 군종별훈련 그리고 해상구조와 《반테로》, 재난구조훈련 같은것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그에 비해 남조선에서 감행되는 《키 리졸브》, 《독수리》와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의 합동군사연습들은 수십만명의 병력과 최신전쟁장비들이 동원되고 기간도 수개월씩 되는데다가 훈련내용 또한 엄중하고 위험천만한것들이다.

지속성에 있어서도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북침전쟁연습

은 정전이래 오늘까지 60년동안 어느 하루도 그칠사이없이 계속되여왔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정전이후 지금까지 남조선에서 감행한 각종 북침전쟁연습과 군사훈련은 공개된것만 해도 총 1만 8 000여차에 달한다는 사실은 상상을 초월한다.

사태의 진상을 바로 가려보는 군사전문가들은 지구상에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벌리는 북침전쟁연습처럼 1년내내 상대방의 문전에서 도발적으로 감행되는 군사연습은 없으며 그것이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는 요인으로 된다고 한결같이 지적하면서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특히 광란적으로 감행된 이번의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만 놓고보아도 그 성격과 내용, 기간과 규모, 투입되는 무장장비 등으로 볼 때 철두철미 공화

국에 대한 기습적인 선제타격을 노린 위험천만한 북침핵전쟁연습이라는것을 명백히 알수 있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남조선미국 련합군사령부의 주관밑에 《유사시》 조선반도에 투입되는 미증원군의 《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 등을 숙련하기 위한 련합지휘연습과 련합특수작전 및 후방지역작전을 위한 련합야외기동연습으로 감행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군부는 해마다 이 연습들을 통하여 조선반도 《유사시》 미군의 신속한 투입 및 남조선군의 작전능력, 남조선의 인적, 물적자원동원능력을 검증, 련마하여왔다. 특히 호전광들은 이 연습을 북의 《전략적 요충지들을 선제타격하여 점령한다.》는 모험적인 전쟁각본을 계속 수정보충하는 기

회로 삼아왔다.

호전광들은 국지전도발의 류형까지 미리 정해놓고 그에 따른 훈련을 벌리면서 불의에 공화국의 전략거점들을 선제타격할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그에 대해서는 남조선 《정부》관계자들까지도 《<키 리졸브>훈련은 기본적으로 초기에 국지도발로 시작하여 전면전에 들어가고 전면전을 하면서 북의 내부변화에 대비한 연습》이라고 실토한바 있다.

최근년간 이 북침합동군사연습은 그 누구의 《급변사태》를 가상한 《작전계획 5029》가 적용된것으로 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커졌다.

폭로된바와 같이 《작전계획 5029》는 그 누구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군과 남조선군이 즉시 군사적개입에로 이

행하여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고 점령지역에서 민사작전을 벌린다.》는 극히 어리석은 망상밑에 고안된 북침계획이다.

그 골자는 전쟁개시 90일전에 남조선강점 미군특수작전사령부와 미중앙정보국산하 특수작전단, 남조선군특수부대들을 공화국북반부지역에 은밀히 침투시켜 심리전, 테로, 교란 등으로 《급변사태》를 의도적으로 일으킨 다음 대규모무력침공을 단행하는것이다. 북침에 환장한 호전광들은 지어 해일과 지진 등 대규모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그것을 《급변사태》로 보고 침략행동에 나서기로 하였다.

이 모든것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감행하고있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저들이 우겨대는 《방어훈련》인것이 아니라 명실공히 선제공격을 노

린 북침전쟁연습, 위험천만한 핵시험전쟁이며 공화국에 대한 최대의 도발행위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더우기 심각한것은 이번 침략전쟁연습에 미국의 첨단살인장비들이 앞을 다투어 참가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번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시 미군의 《B-52》전략폭격기에 의한 선제핵타격연습이 조선반도상공에서 여러차례나 감행되였으며 처음으로 《B-2A》스텔스전략폭격기까지 미국본토에서 남조선지역 상공에 날아들어 핵폭탄투하 모의훈련을 벌리였다.

지어 미국이 그처럼 《자랑》하는 《F-22》스텔스전투기가 조선반도에 날아들고 요격미싸일을 탑재한 이지스구축함 《죤 에스. 맥케인》호와 《디케이터》호, 탄도미싸일탐지용 이동식해상레이다 《SBX-1》

이 급파되고 2개의 핵항공모함집단까지 조선반도 가까운 수역에 기동전개되였다.

이것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핵전쟁광기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3월 19일 당시 《B-52》전략폭격기가 폭격훈련을 하고있었던 훈련장에서 평양까지의 직선거리는 344㎞라고 한다. 만일 《B-52》전략폭격기가 훈련장상공에서 핵탄두를 탑재한 미싸일을 발사한다면 그 핵미싸일이 평양에 도달하는 시간은 20여분밖에 안된다고 한다.

우에 언급한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누구나 직감할수 있을것이다.

《B-52》전략폭격기의 출현을 두고 남조선의 한 언론은 이것을 《북의 심장부에 칼을 들이대는 로골적인 적대행위》로 규정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핵타격작전시간으로 보면 평양에서 불과 20여분밖에 떨어지지 않은 최근접발사거리에서 선제핵타격연습을 감행하는 <B-52>의 잔인한 행동을 바라본 사람들은 리성과 량심으로 말해야 한다. 지난 수십년동안 그처럼 숨막히는 미국의 선제핵타격위협을 받으며 살아온 북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핵타격력을 보유한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

공화국의 핵보유가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것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대목이다.

지금 호전광들은 북남사이에 군사적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여 남조선군과 공동대응한다는 그 무슨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이라는것까지 조작하고 이 각본에 따라 저들이 먼저 도발

을 걸어 국부전쟁을 일으키고 그것을 구실로 미군의 방대한 무력을 끌어들여 전면적인 북침핵전쟁을 감행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이처럼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방어》와 《년례적》이라는 간판밑에 벌려놓고있는 형형색색의 군사연습들은 철두철미 그 력사적뿌리는 물론 규모와 성격, 내용과 목적에 있어서 용납될수 없는 북침핵선제공격연습으로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계획적인 도발이라는것이 명백해졌다. 저들이 그에 대해 아무리 《방어용》이요, 《도발억제용》이요 하며 둔갑술을 써도 북침을 노린 예비전쟁, 핵시험전쟁으로서의 정체는 결코 감출수 없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공화국의 자위적초강경조치에 대해 오히려 제편에서 《도발》이니, 《위협》이니 하고

떠들어대는것은 저들의 위험천만한 반공화국 침략책동을 미화분식해보려는 음흉한 술책이며 도적이 매를 드는 황당무계한 강변이다.

공화국의 핵타격수단들이 멀리 대양건너에서 저들의 본토를 겨누고있는것마저도 기겁하여 아우성치는 미국이 아마 공화국이 미국의 코앞에 가서 대규모군사훈련을 한다면 아예 기절초풍하고말것이다.

더우기 공화국의 인민군대가 미국앞바다에서 군사훈련을 하면서 방어를 위한것이라고 한다면 미국은 곧이 들을수 있겠는가.

제반 사실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는 주범, 핵전쟁을 몰아오는 도발자, 침략자는 다름아닌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라는것을 증시해주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북의 《도발》에 대하여 떠들어댈수록 북침핵전쟁의 도

화선이 더 빨리 타들어간다는것이 더더욱 명백해졌다.

도발자들에게 차례질것은 파멸뿐이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지난 3월 5일 대변인성명을 통하여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공화국에 대한 도발행위를 강행하면 할수록 자멸을 재촉하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것이라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성명에서는 《원쑤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으로 내리치고 총을 내대면 대포로 풍지박산내고 핵으로 위협하면 그보다 더 위력한 우리 식의 정밀핵타격수단으로 맞선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립장이

며 백두산식대응방식이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운명의 갈림길에 서있다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공화국의 초강경립장을 명백히 밝히였다.

그러나 내외호전광들은 공화국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침전쟁연습강행으로 잔명유지의 기회마저 서슴없이 차던지는 망동을 부리고있다.

지난 3월 6일 괴뢰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라는자는 기자회견이라는데서 나라의 자주권수호를 위한 공화국의 단호한 조치들을 《군사적위협》으로 매도하면서 그 누구의 《도발》시 《원점과 지원세력은 물론 지휘세력까지 응징》할것이라고 떠들어댔다. 그런가 하면 3월 14일에도 남조선군 해병대 부사령관이 연평도에 나타나 공

화국의 최고존엄을 또다시 건드리는 천추에 용납할수 없는 무엄한짓을 저질렀다.

사실들은 조선반도의 군사적도발과 위협의 장본인이 과연 누구이며 핵전쟁위협이 도대체 어디서 오고있는가 하는것을 말해주고있으며 이런 천하불망나니들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으며 오직 무자비한 징벌만이 있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빈말을 모른다.

한다면 하는것이 조선의 본때이다.

공화국은 이미 확언한바와 같이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되여오던 조선정전협정의 모든 효력을 단호히 전면백지화해버림으로써 정전협정의 사소한 구속도 받음이 없이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하여 제한없이 마음먹은대로 정의의 타격을 가하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대업을 이룩하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였다.

호전광들이 핵이발을 드러낸 이상 무자비한 핵불소나기로 원쑤의 아성을 흔적도 없이 초토화해버리고 조국통일대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려는것이 공화국의 철석의 의지이다.

지금 남조선군부우두머리들은 《즉각적인 응징》이니, 《10배 보복》이니 하며 허세를 부리다못해 가소롭게도 그 무슨 《북군초토화전략》이라는것까지 들고나와 그 실행을 위한 준비사업을 강도높이 진행하면서 방대한 무력을 동원한 침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감행하고있다.

범 무서운줄 모르는 하루강아지처럼 미국의 전쟁하수인, 자주성이라고는 꼬물만큼도 없는 남조선호전세력이 공화국을 어째보겠다고 허세를 부리고있는 모양은 실로 꼴불견이다.

이 땅에 만약 전쟁의 불길이 타번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남조선호전광들에 대한 완전벌초, 완전초토화로 끝나고말것이다.

최근 남조선군 사병들속에서 병영리탈자, 자살자가 계속 늘어나고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경계근무시 오발하는 현상, 북쪽에서 포탄이 날아온다고 오보하는 현상 등 웃지 못할 희비극들이 줄지어 연출되고있어 남조선군부를 아연실색케 하고있다.

게다가 엎친데 덮친 격으로 남조선군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무장장비실태와 전투준비상태가 련일 언론에 로출되여 사회의 비난거리로 되고있다.

지난 시기 자료를 놓고보아도 《동아일보》 2011년 11월 3일 보도에 따르면 남조선군의 전투예비탄약 보유일수는 15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155㎜포의 포탄부족량은 그

보다 더 심각하다고 한다. 또한 《동아일보》 2011년 11월 2일 보도에 따르면 남조선군이 보유한 각종 미싸일 4 593기가운데 20%에 이르는 908기가 2016년안에 수명주기가 끝나 페기처분될것이라고 한다. 《한국일보》 2011년 4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남조선군이 로씨야에서 대전차미싸일 9 700발을 1 500억원을 들여 수입했는데 지난 2년동안 진행한 발사훈련에서 60%가 불발 또는 오발하는 사고를 일으켰다는것이다.

얼마전에 남조선호전광들은 만일 공화국이 백령도와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개섬을 타격하는 경우 《공중과 지상, 해상전력을 총동원하여 <도발원점>과 지원 및 지휘세력을 <응징>하는 방안을 세워놓고있다.》고 악청을 돋구어댔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실현될수 없는 공

상에 불과하다는 전문가들의 결론이 나와 남조선군부에서 아우성이 터져나오고있다.

우선 공화국이 서해지역에 실전배치한 지상대공중미싸일 등의 공격을 피해 100㎞밖에서 이른바 정밀타격을 가할수 있다는 《SLAM-ER》미싸일은 그 수량이 40발정도밖에 안되는데다가 그것마저도 기술적성능에 문제가 생겨 사용금지조치가 내려져있고 지난해말부터 남조선군 공군에 배치되기 시작한 중거리정밀유도폭탄도 수량적으로 매우 적다는것이다.

또한 지상에 있는 다련장로케트포 《MLRS》와 《에이타킴스》미싸일도 북의 장사정포와 단거리미싸일의 타격권안에 들어있어 즉시 가동된다는 담보가 없고 해군함정 역시 단발에 구축함을 요정내는 《강력한 위력》을 가진 북의 해상대해상미싸

일과 지상대해상미싸일의 공격때문에 쉽게 기동하기가 어려울것이라고 떠들고있다.

합동참모본부의 고위관계자까지도 공화국이 서해지역에 실전배치한 각종 미싸일로 남조선군 륙, 해, 공군무력의 《손발》을 얽어매는 동시에 장사정포로 서해 5개섬을 타격할 경우 《보복이 어렵다.》고 속내를 털어놓고있으며 언론에서도 《현실적제약이 적지 않아 대응이 쉽지 않을것》이라고 아우성치고있다.

남조선호전광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세계일보》(2013년 3월 11일)가 2004년에 실시하였던 모의전쟁결과를 공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조선반도에서 전쟁발발이후 24시간이내에 남조선군, 남조선강점 미군등을 포함한 사상자가 23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였다. 이것은 1994년 추정치 150만명에서 1.5배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그러나 이 자료는 10년전의 전쟁상황을 예측한것에 불과하다.

옛말로 말하면 강산이 한번은 변할만큼의 세월이 흘렀으니 그동안 공화국의 타격력이 얼마나 위력해졌는지는 미국과 남조선군부도 가히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얼마전에는 서울, 경기도, 인천지역이 북의 공격을 받을 경우 191.2㎢에 달하는 면적이 완전초토화되고 325만여명의 사상자가 날것이라는 남조선군 합동참모본부의 예상자료가 공개된것으로 하여 서울지역 주민들속에서 대피소를 확인하는 복닥판이 벌어져 남조선호전광들이 사태수습에 나섰다고 한다.

이러한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에 지나지 않는다. 실지상황에서는 이보다 더 참혹할

것이라는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앞으로의 조선전쟁을 예상한 어느 한 군사평론가는 조선서해와 동해에서 벌어질 해상전을 평하면서 남조선군 해군 수상함선 122척은 개전시각으로부터 10시간안에 전부 격침되여 력사적인 북남해상전은 10시간만에 막을 내리게 될것이며 조국통일대전은 북의 승리로 3일만에 결속된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조국통일대전은 3일대전도 아니며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미처 정신을 차릴 사이없이 단숨에 남조선 전지역과 제주도까지 타고앉는 벼락같은 속전속결전, 하늘과 땅, 바다는 물론 전방과 후방이 따로 없는 립체전으로 될것이라는것이 공화국의 단호한 립장이다.

지금 공화국의 위력한 타격수단들은 발사대기상태에 있고 탄두들에는 목표좌표들

이 정밀하게 입력되여있다. 이제 단추만 누르면 발사되게 되여있고 발사되면 원쑤들의 아성이 온통 불바다가 되고말것이다.

오죽하였으면 남조선보수언론까지 북이 남조선 여러 지역에 핵무기를 동시에 사용하면 수백만명의 희생자가 발생할수 있다,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북의 핵무기공격대상이 되면 말그대로 남조선전역이 초토화되는셈이라고 비명을 질러 호전광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겠는가.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으로 말한다면 략탈과 살륙, 무력간섭과 전복음모, 침략과 전쟁으로 얼룩진 범죄의 력사를 가지고있다.

국가형성이래 제1차 세계대전까지의 기간에 110여차의 크고작은 침략전쟁과 8 900여차의 군사적간섭으로 령토를 원래의 10배이

상 확장한 강도국가가 바로 미국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시기부터 20여차의 전쟁을 도발하거나 개입한 미국의 전쟁《운수》는 그만하면 좋았다고 할수 있다. 미국의 령토에 상대국의 포탄 한발 떨어지지 않은것이다. 이로부터 미국은 자기 힘을 과신하는데 습관되였으며 이것은 독단과 전횡을 낳는 온상으로 되였다. 미국의 오만성은 극도에 달하였다.

하지만 공화국과의 대결에서는 사정이 다르다는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공화국은 조미대결전을 위해 60년가까이 준비해왔다.

오늘날 공화국은 주체적인 국방공업이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을 능히 타승할수 있는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는데 대해 구태여 숨기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미국내에서도

불안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이런 불안감을 가시고 이른바 《강대국》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요격미싸일발사시험에서 성공하였다느니 북의 미싸일을 모두 요격할수 있다느니 하면서 자체위안에 급급하던 나머지 얼마전에는 공화국의 미싸일공격을 막는다고 하면서 유럽미싸일방위체계까지 변경시키고 10억 US$를 들이밀기로 하였다고 한다.

10여년동안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전쟁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막다른 재정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미국의 사정을 고려해볼 때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다. 그런데 범 본 놈 창구멍 틀어막는 식의 그런 허무맹랑한 놀음으로 과연 예측불가능하고 정밀타격이 가능한 공화국의 미싸일공격을 막아낼수 있겠는지.

하지만 물에 빠진자 지푸래기라도 잡는다고 거기에라도 운명을 맡길수밖에 없는 미국의 말 못할 고민을 충분히 엿볼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미국이 공화국과의 대결을 치르자면 제2차 세계대전이래 지금까지 준비해온 군사장비들을 다 쏟아부어도 모자랄것이라는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정세분석가들은 미국이 조선과의 대결에서 패하는 경우 막대한 물적손실을 입고 제3부류 국가로 굴러떨어질것으로 보고있다. 이것은 지난 수십년동안 경제발전의 《혜택》을 누려온 미국으로서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일이 아닐수 없다.

미국에 의해 핵을 수단으로 조미대결전이 치르어진다 해도 공화국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공화국의 무자비한 보복성전의 붉은 화살표는 이미 미국본토와 태평양상의 미군기지들을 비롯하여 미군이 둥지를 틀고있는 모든 거점들에 그어져있다.

만일 미국이 공화국의 령토에 단 한발의 포탄을 떨구는 날은 곧 미국이 사라지는 날이 될것이다. 공화국은 자기식의 막강한 정밀핵타격수단들과 핵전쟁전법들로 대응할것이며 미국은 마땅히 뼈저린 대가를 치르고야말것이다.

《자주민보》(2013년 3월 9일)에 실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조선전쟁에서 치러야 할 미국의 대가에 대하여 잘 말해주고있다.

《미국이 치러야 할 뼈저린 대가란 북과 맞붙은 전쟁에서 패하는것을 뜻한다. 미국은 패전하여 가슴치며 후회하는것으로 끝

나는게 아니라 북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하게 될것이다.

북의 조국통일대전은 웰남전쟁과 전혀 다른, 세계전쟁사에 류례없는 단숨에 끝날 전쟁이 될것이다. 북과 미국이 서로 밀고 당기는 무슨 종전협상 같은것도 없을것이고 평화협정체결도 없을것이다. 북이 이미 공언한대로 북이 조국통일전쟁을 단숨에 끝내는 종전의 날 북에게는 승전국의 전후처리가 있을것이고 미국에게는 패전국의 항복절차가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남조선에서 한시바삐 도망치는 훈련까지 하고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날고뛰여야 공화국의 타격을 피할 자리가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으며 제가 저지른 불에 재가루가 되고만다는것을 도발자인

미국은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 천만군민은 이미 선포한대로 불을 즐기는 침략자, 도발자들의 아성과 본거지들을 모조리 초토화해버릴것이다.》, 《평화의 파괴자, 전쟁도발자, 동족대결의 원흉은 우리의 정의의 타격을 피할 곳이 없을것이다.》, 《우리는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조국통일대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공화국의 전체 군대와 인민은 이런 멸적의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고있다.

세계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자주권수호를 위한 정의의 길로 질풍쳐나아가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도발자들과의 반미대결전, 조국통일성전에서 어떻게 최후승리자가 되는가를 놀라움과 경탄속에 보게 될것이다.

《북도발》설의 진상을 고발한다

저 자 한 남 철
장 정 김 윤 일
교 정 림 향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2(2013)년 5월 3일
발 행 주체102(2013)년 5월 6일

ㄱ—1149ㄷ